

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정보통신기술 활용해 '스마트시티' 만든다	교토
산업·경제	3	제2기 모노즈쿠리 기업 활성화 실행계획 시동	오사카
사회·복지	5	'맞춤형 지원, 노숙예방, NPO 연계' 노숙자 자립계획 발표	요코하마
	7	수영장 건립·개보수에 6년간 1.5억 유로 투입	파리
	9	아동기관 조직문화 혁신 유도 '아동안전기준법' 시행	빅토리아
환경·안전	11	환경평가 등급이 나쁜 기업에 전기요금 더 많이 징수	장쑤
도시계획·주택	12	저소득층에 저렴한 주택 20만 호 공급 추진	뉴욕

## 정보통신기술 활용해 ‘스마트시티’ 만든다

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 구축

일본 교토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일본 교토市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육성,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해결 및 녹색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‘교토시 녹색산업진흥 비전(京都市グリーン産業振興ビジョン)’을 2014년 5월 발표
- 비전의 목표
  - 정보통신기술(ICT)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에너지의 최적화
  -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인 스마트시티 구축
  - 시민생활의 질 향상
- 비전의 주요 내용
  - ‘스마트시티 교토연구회’에 의한 새로운 프로젝트 조성
    - 교토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조성
    - ICT와 방재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한 방재에 강한 마을 만들기
    - 교토다운 주택문화의 계승과 발전
    - 관광 도시로서의 질 향상
  - 오카자키 지역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
    - 공공시설에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(BEMS :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)이나 재생가능에너지 등을 도입



오카자키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 개념도

- 축전지, 코제너레이션 시스템(Co-Generation System)\* 등의 도입 및 다른 지역 공공시설과의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
- 에너지와 친환경의 ‘쇼케이스화’
  - 교토시 동물원을 ‘에코 동물원’으로 변화시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
  - 소수력 발전\*\*의 도입
- ‘스마트시티 교토’ 구축
  - 사회 환경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설립
- 2020년까지 녹색산업의 진흥, 시장 및 고용 규모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
  - 프로젝트 창출 50건 : 지역의 산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새로 시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를 지표로 설정
  - 감정위원회 인증기업 수 30건 : 기업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인증기업 중 녹색산업 분야의 실적을 근거로 설정
  - 기업집적 수 50개 :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기업 등의 실적을 근거로 설정

<http://www.smartcity-kyoto-project.jp/>

<http://www.smartcity-kyoto-project.jp/wp-content/uploads/2015/03/vision.pdf>

[http://www.smartcity-kyoto-project.jp/wp-content/uploads/2015/03/vision\\_summary.pdf](http://www.smartcity-kyoto-project.jp/wp-content/uploads/2015/03/vision_summary.pdf)

\* 전기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열을 냉·난방 및 급탕에 재활용함으로써 전력과 열을 함께 공급하는 에너지 절약형 발전 방식

\*\* 높이로 인한 수력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

## 산업·경제

### 제2기 모노즈쿠리 기업 활성화 실행계획 시동

일본 오사카府 / 산업·경제

- 일본 오사카府는 모노즈쿠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‘제2기 MOBIO 모노즈쿠리 기업 지원 실행계획(MOBIOものづくり支援アクションプラン第2期)’을 수립
  - 모노즈쿠리 :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중소기업의 특징을 통칭하는 용어
  - 오사카부는 2010년 ‘모노즈쿠리 비즈니스 정보센터(MOBIO : Monodzukuri Business Information-Center Osaka)’를 설립하여 관련 기업을 직접 지원
  - ‘제1기 MOBIO 모노즈쿠리 기업 지원 실행계획’은 2011년에 수립
- 비전 및 활동지침
  - 비전 : 최고의 모노즈쿠리 기업환경 구축
    - MOBIO를 통해 국내외 모노즈쿠리와 관련된 기업, 기관, 연구원,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 구축
  - 활동 지침 : EG 오사카(Economic Gardening Osaka) 추진
    - 오사카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하는 EG 오사카 추진



MOBIO 모노즈쿠리 지원 실행계획의 개념도

- 사업 전략

- 정보교류의 장 제공
  - 모노즈쿠리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발굴·연계하는 MOBIO 포럼 등을 개최
  - 국내외 상설전시장에 견학자나 방문자를 유치하여 이들과 모노즈쿠리 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
- 모노즈쿠리와 비즈니스의 매칭을 지원
  - 모노즈쿠리와 대기업, 공기업, 대학 등과의 연결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지원
  - 소비재의 프로모션과 판로개척 지원
- 모노즈쿠리의 기술혁신을 지원
  - 기업의 눈높이에 맞고 기업에 필요한 연구과제의 발굴 등
  - 산학연계 프로젝트의 창출을 지원
  - 인재의 발굴 및 육성
- 모노즈쿠리의 지적재산 전략 지원
  - 다른 기관의 지적재산을 활용하려는 모노즈쿠리 기업에 대한 조언, 정보 제공, 전문가와의 매칭을 실시
  - 해외진출 시 해외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
- 모노즈쿠리의 비즈니스 환경정비를 지원
  - 기업 경영자, 전문가,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
  - 다른 지역과의 정보교환 및 교류의 장 창출
  - 공립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등과의 연계

<http://www.pref.osaka.lg.jp/mono/seizo/>

<http://www.inpit.go.jp/index.html>

<http://www.m-osaka.com/jp/index.html>

## 사회·복지

### ‘맞춤형 지원, 노숙예방, NPO 연계’ 노숙자 자립계획 발표

일본 요코하마市 / 사회·복지

- 일본 요코하마市는 2004년과 2009년에 수립된 노숙자 자립지원 실시계획을 좀 더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‘제3기 노숙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실시계획 2014~19(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実施計画, 2014~19年)’를 수립
- 실시계획의 중점사항
  - 노숙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
  - 노숙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방
  - NPO 등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연계
- 노숙자 지원사항
  - 취업과 자립지원
    -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는 당사자의 요구와 주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
    - 자립지원시설은 입소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계획을 편성
    -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강습 등 직업훈련 기회 제공
  - 거주지 확보 지원
    - 전일본부동산협회가 파견된 주택상담원과의 상담시스템 구축
    - 보증인이 없는 경우 요코하마시 민간보증회사, 건설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택의 알선, 월세, 채무보증 등을 지원



요코하마시의 노숙자 지원관련 센터 '사나기의 집(さなぎの家)'

-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
  -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장소를 순회하며 상담 및 지원
  - 자립지원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
- 다시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
  - 취업이 곤란한 경우 복지보건센터와 자립지원시설이 협력하여 다시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실시
  - 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후 지원사업을 시행
- 노숙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
  - 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지역의 일용직근로자 고용을 권장
  - 노숙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센터에서 취업, 주거, 생활보호 등의 상담을 실시
  - 구직자 지원제도, 주택지원급부제도(임대료 보조정책) 등의 지원책을 소개
- 인권에 대한 고려
  - 노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기 위하여 인권 연수 등을 실시
  - 학교에서 인권교육 추진
- 민간단체와의 연계
  - 노숙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에 협조 요청

<http://www.city.yokohama.lg.jp/kenko/entai/homeless/>

<http://www.city.yokohama.lg.jp/kenko/entai/homeless/jisshikeikaku/homelessplan.pdf>

## 수영장 건립·개보수에 6년간 1.5억 유로 투입

프랑스 파리시 / 사회·복지

- 프랑스 파리시는 시민 1만 명당 100㎡의 수영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6년간 1억 5천만 유로(2,000억 원)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수영장의 건립과 기존 수영장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진행
- 배경
  - 파리시에는 39개의 시립수영장과 9개의 학교수영장이 있음.
  - 파리시는 2001년 이후 수영장의 개보수 및 확충을 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은 계속해 증가
  - 지난 13년간 시립수영장의 이용률은 46% 증가하였고, 연간 7백만 명이 수영장을 이용
  - 수영장별 연간 수용인원은 12만 명이지만, 이용자는 19만 명에 달함.
- 수영장 시설 확충 및 건립 계획
  - 실내 수영장 4개 건립
  - 국방부 건물 내 수영장을 저녁과 주말에 일반시민에게 개방
  - 실외 수영장 증설 및 여름철 실외 물놀이 시설·설비 확충
  - 수영장의 개보수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
  - 수영장의 보수공사 기간 중 시민의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스포츠센터에 이동식 수영장 설치
- 수영장의 에너지 절약
  - 2020년까지 수영장의 에너지 효율을 20% 높이기 위해 보수공사 시행
  - 수영장의 수온을 유지하는 최신기술 적용
  - 신규 수영장 건립에도 에너지 효율 등을 강조
- 수영의 활성화
  - 수영교육의 의무화
    - 파리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수영교육을 의무화
    - 저소득층의 수영교육을 강조

- 초등학교와 수영 클럽 간의 협력관계 구축
- 대중이용 확대
  - 수용인원 20% 확대
  - 8개 수영장을 대중이용 중점 수영장으로 지정하고, 4개 수영장은 밤 10시 까지 운영
  - 수요일과 주말에는 수영장 행사 등 가족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
  - 학교 수영장에는 영유아 수영 및 물놀이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
- 수영클럽의 활동지원
  - 수영 동호회, 건강 동호회, 수영대회 등을 운영
  - 수영장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파리시와 협약을 맺은 10개의 수영 클럽을 대상으로 전체 수영장 운영시간의 30%를 배정하고 다양한 수영 활동을 보장
  - 파리시는 스포츠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각 클럽의 활동을 지도하고, 각 클럽에 소재지의 수영 활동을 활성화할 책임을 부과
- 수영장 안내 앱의 제공
  - 수영장의 위치, 개장시간, 입장료, 시설 등의 정보 제공
  - 수영장의 실시간 이용정보 및 이용현황 제공
  -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을 등록하면 임시휴무 등의 정보 제공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un-plan-ambitieux-pour-la-nage-a-paris-2455>

<http://www.paris.fr/services-et-infos-pratiques/innovation-et-recherche/ville-intelligente-et-durable/paris-ville-connectee-2341>

## 아동기관 조직문화 혁신 유도 ‘아동안전기준법’ 시행

호주 빅토리아주 / 사회·복지

- 호주 빅토리아주는 아동학대 및 방치 등 아동복지를 위협하는 요인의 관리 및 아동복지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5년 11월 ‘아동안전기준법 2015(Child Wellbeing and Safety Amendment(Child Safe Standards))’를 제정
  - 아동안전기준법은 아동 관련기관들을 규제하기보다 아동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
- 아동안전기준법의 주요 내용
  - 아동학대를 신체적 폭력, 성적 학대, 감정적·심리적 학대, 방치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
  - 아동과 관련된 기관들의 조직문화 혁신을 도모하여 아동보호 원칙이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
  - 아동학대의 위험이 큰 원주민 아동, 이민자 아동, 장애인 아동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.
- 아동 관련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7가지 기준
  - 아동안전에 위한 조직문화의 수립과 유지
    - 기관의 사명과 비전에 아동안전에 주요 목표로 명시
    - 아동안전담당자의 임명
    - 연간보고서에 아동안전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배정
  - 아동안전 정책
    - 아동안전에 대한 서약 및 정책 개발
    - 아동의 권리와 직원의 의무 등을 명시
  - 아동에게 적절한 행동강령 제정
    - 아동과 접촉할 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수칙 마련
  - 직원들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훈련
    - 직원채용 시 아동 관련 범죄경력 조사
    -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아동안전 수행성과 점검
  -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대응 전략
    -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법을 명시

- 아동학대 발견, 감소, 근절을 위한 전략
    - 야외행사나 활동 등 일상적인 조직운영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발굴
    - 행동강령 위반자에 관한 처벌규정 확립
  - 아동의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한 전략
    -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실시
- 실행 방안
- 아동안전기준법은 기관 유형에 따라 2단계로 시행할 예정
    - 1단계 : 2016년 1월 시행 예정
      -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및 규제를 받고 있는 기관 : 학교, 유치원, 병원, 아동보호시설, 위탁가정 등
      - 이 기관들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행동수칙과 안전기준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.
    - 2단계 : 2017년 1월 시행 예정
      -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과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 : NGO, 학원, 상담소, 스포츠 단체 등
      - 이 기관들은 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new-child-safe-standards-take-effect-today/>

<http://www.dhs.vic.gov.au/about-the-department/documents-and-resources/policies,-guidelines-and-legislation/child-safe-standards>

## 환경·안전

### 환경평가 등급이 나쁜 기업에 전기요금 더 많이 징수

중국 장쑤省 / 환경·안전

- 중국 장쑤省은 환경오염방지 대책 중 하나로 환경평가 등급이 나쁜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징수하는 ‘환경보호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전기요금의 차별화 시행문제에 대한 통지(关于根据环保信用评级等级试行差别电价有关问题的通知)’를 2015년 12월에 발표
  - 중국정부는 환경오염 문제가 굳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발표
- 주요 내용
  - 장쑤성은 ‘환경보호 신용평가 및 신용관리 잠정방법(江苏省企业环保信用评级及信用管理暂行办法)’에 따라 성내 기업을 대상으로 ‘환경보호 신용평가’를 시행
  - ‘환경보호 신용평가’는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
  - 장쑤성은 2016년 1월부터 ‘환경보호 신용평가’ 후 ‘나쁨’과 ‘아주 나쁨’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기준보다 높게 책정
    - ‘나쁨’은 1kWh당 0.05위안(한화 약 9원)을, ‘아주 나쁨’은 1kWh당 0.1위안(18원)을 상향 조정
- 장쑤성은 향후 평가결과가 나쁜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개선도에 따라 전기요금 징수기준을 조정할 예정

<http://news.dahe.cn/2015/12-22/106195361.html>

<http://js.people.com.cn/n2/2015/1228/c360302-27417713.html>

<http://jsnews.jschina.com.cn/system/2015/12/22/027423368.shtml>

[http://www.jiangyin.gov.cn:88/websites/\\_ext/wzjq/xxgk/detail\\_xxgk.jsp?id=1pn3y7kebta45](http://www.jiangyin.gov.cn:88/websites/_ext/wzjq/xxgk/detail_xxgk.jsp?id=1pn3y7kebta4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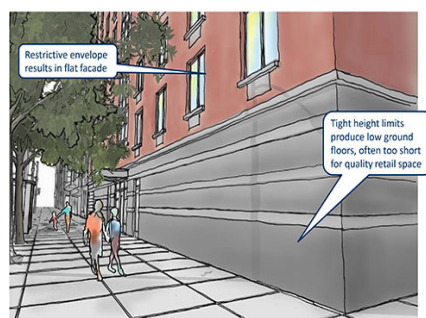
## 도시계획·주택

### 저소득층에 저렴한 주택 20만 호 공급 추진

미국 뉴욕시 / 도시계획·주택

- 미국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저렴한 주택인 이른바 어포더블 하우스(Affordable Housing) 2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'뉴욕 주택계획(Housing New York : Zoning for Quality and Affordability)'을 2015년 12월 발표
- 배경
  -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포더블 하우스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나 주택임대료의 상승과 한 세대 전에 만들어진 조닝체계로 어포더블 하우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.
- '뉴욕 주택계획'의 목표
  - 건축물의 용도, 크기, 형태 등 조닝의 규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포더블 하우스 공급을 용이하게 함.
  - 주택구입능력(Affordability)
    - 노인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스의 공급
    - 사회계층혼합주택(Inclusionary Housing)의 공급
    - 역세권에 어포더블 하우스 공급을 위해 불필요한 건설비의 최소화

Current Rules – Commercial Street



기존의 조닝에서의 1층 모습

With Proposal – Commercial Street



조닝 변경 후의 1층 모습

- 주택의 품질 개선
  - 보행자들의 시각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관, 1층의 높이, 마당 등의 디자인 개선을 유도
  - 주거공간은 적절한 층고를 확보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
  - 건물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
- ‘뉴욕 주택계획’에 의해 변화된 내용
  - 중·고밀도 용도지구
    - 노인주택세대나 저소득층 전용세대를 확보한 경우 추가적으로 1~2층까지 층고를 높일 수 있음.
    - 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정해진 높이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고도 규제
    - 노인전용주택이나 시설의 범위를 노인 단독주거에서 양로시설까지로 확장
    - 대중교통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해당 주택의 주차시설을 확보해 줌.
  - 다세대주택 허용 저밀도 용도지구
    - 노인주택은 층수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    - 1층의 층고를 높이고 셋백\*을 함으로써 지상층에 조경을 확보하도록 함.
  - 관련 사항
    - 상업적인 용도로 층고를 늘리는 것을 금지
    - 역사건축물, 랜드마크 등 보전해야 할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
    - 공공용지, 공원, 녹지 등은 줄이지 않음.

<http://www.nyc.gov/html/dcp/html/zoning-qa/zoning-for-affordability-1.shtml>

---

\* 셋백(SetBack) : 도로 또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 건물을 후퇴시키는 것